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1-10

###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 찬송가:

새336(통383)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88(통88) 내 진정 사모하는

새382(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여는 질문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 때문에 혼란 적이 있나요? 내가 특별히 한 일도 없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언제는 가만히 있으려 하고 언제 가만히 있지 않으려 했나요?

#### 본문 이해

욥기는 인간의 체험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문제들은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를 다룹니다. "왜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고통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욥기는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공격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3:1-42:6). 이러한 대화와 공격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욥이 고난당하고 회복되는 이야기(욥 1-2장; 42:7-17)입니다. 욥 1-2장은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욥을 시험하는지 또 욥이 어떻게 시험을 잘 이겨내는지 보여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1:1, 8; 2:3).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1:1b; 잠 3:7b)로서, 평강을 누리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전통적인 심판과 보은 신학의 살아있는 모범이었습니다. 이 신학은 '의는 보상받고 죄는 심판받는다'고 가르칩니다(예. 신 30:15-20; 잠 1:29-

33). 그런데 욥이 갑자기 모든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1:9) 물으면서 시작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험 내내 욥은 신실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1:21). 나중에 둘째 시험을 받을 때는,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2:10) 하고 물었습니다. 욥은 자기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상을 기대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처럼 묻는 게 오히려 옳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9).” 그러나 심판과 보응 신학이 무너지는 때도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 말씀 속으로

1. 욥기는 욥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욥 1:1-5)

2. 하나님은 욥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사탄은 하나님께 무어라 묻나요? 욥의 신실함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탄은 어떻게 하나요?(욥 1:6-12)

사탄은 욥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자기 유익이 있어서 섬기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욥을 믿고 사탄에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3. 욥은 소유와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응답하나요?(욥 1:20-22; 2:10)

욥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욥은 과거에 모든 것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이 죽고 재산 날아갔습니다. 자녀들까지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아내는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왜”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삶 속으로

1.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나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 믿나요 혹은 복을 받아서 믿나요? 우리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지나치게 대조하여 그 중 하나만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섞인 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행동도 정화되고 마음의 동기도 정화되는 삶입니다.

2. 우리는 정말 욕이 그랬다고 하듯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엄청난 상실 슬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욕의 아내가 하는 말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당한다고 하면, 신앙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번영이 늘 덕의 결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도 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은 나에게 빛진 것이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 암송구절 욕기 1:21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 자녀와의 나눔

1.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이 까닭 없이 다 거절해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2. 친구가 나의 부모님에 대해 나쁘게 말할 때 나는 무어라 말할까?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3:1-9, 16-17

###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 찬송가:

새408(통466)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새91(통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새407(통465)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여는 질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입씨름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로 어떻게 하고 끝냈나요?

#### 본문 이해

침묵하던 욥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태어날 때 죽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침묵을 깨고 보상응징 신학을 주장합니다. 욥이 받을 만한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거둡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거꾸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면,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그러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단지 내 주장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친구들의 보상응징 신학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또 친구들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데, 고난당한다고 합니다. 바르고 온전한 것 같은 친구들의 신학이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학이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떠받드는 보상응징 신학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늘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욥이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더 거칠게 욥을 반박합니다. 욥은 점점 더 단호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외치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들어주지 않자 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걱정적으로 솔직하게 또 담대하게 탄식합니다(9:16-20, 22-24; 16:7, 9, 11-14). 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탄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17:15). 욥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의로우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호소를 들어주고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보상응징 신학의 원칙을 따라 죄가 없다고 선포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23:3-7). 그러나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8-9절).

#### 욥과 친구들의 대화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첫째 대화	4-5	6-7	8	9-10	11	12-14
둘째 대화	15	16-17	18	19	20	21
셋째 대화	22	23-24	25	26	?	27(-28)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욥의 탄식(욥 3, 29-30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혜의 시”(욥 28장)는 욥의 주장의 연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절망하고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 말씀 속으로

1. 욥의 고난에 대해 친구들은 자기들의 보상응징 신학을 따라 무어라 주장하나요?

욥의 친구들은 모두 보상응징 체계 속에서 악이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오류는 보상응징의 정의를 뒤집어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가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옴의 말을 들어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옴의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옴은 하나님이 보상응징 정의를 따라 미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삶 속으로

1. 친구들은 나를 오해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교회의 예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떤 표징으로 드러나나요? 그런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요?

## 암송구절: 옴기 23:8-9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 자녀와의 나눔

1. 사람들이 북적이는 놀이 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부모님을 찾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2. 떨어져 사는 엄마가 딱 하루 같이 있게 되었다고 할 때, 나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38:1-7

욥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 찬송가:

새455(통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새325(통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새411(통473) 아 내 맘속에

### 여는 질문

전기가 나갔을 때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던가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혹시 난장판이 된 것을 알고 다시 정리해 놓으신 적이 있나요?

### 본문 이해

욥 38:1-7부터 욥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단락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응답하십니다(38:1-40:2; 40:6-41:34). 그러나 대답이 아니라 물음으로 응답하십니다: “너는 누구냐?”(2절) “네가 어디 있었느냐?”(4절) “네가 아느냐?”(5절) “네가 할 수 있느냐?”(34절) 욥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욥이 정의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 권세 앞에 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40:4-5).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남겨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수사 의문문들은 욥과 친구들이 지루하게 논쟁하는 보상응징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욥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욥이 의롭고 정직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물음을 피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욥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버림받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짐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주제님께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신학적인 물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목회적인 물음입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 말씀 속으로

1. 욥 38:1-5와 40:6-9를 비교해 보세요. 서로 같은 게 무엇이고 다른 게 무엇인가요? 욥 40:3-5과 42:1-6을 비교해 보세요. 서로 같은 게 무엇이고 다른 게 무엇인가요?
2. 욥은 왜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을까요?(38:4, 5, 34, 35).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거리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한분만이 모든 피조물을 알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이 세상이 욥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며 경탄하고 그 선함을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손임이고 청지기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 삶 속으로

1. 경이로운 세상에 붙잡히면, 욥이 고통을 잊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고 감탄하게 하십니다.

2. 악과 고통처럼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물어올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아픈지, 왜 죄 없는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라도 이런 물음에 답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답을 얻어서가 아니라 질문 그 자체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 **암송구절: 욥 38:2-3**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 **자녀와의 나눔**

1.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나요? 내가 힘쓰던 일 중에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나요?
2. 나는 알고 부모님은 모르는 것이 있나요? 부모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는 것이 있나요?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42:1-17

**제목:** 내 중 욥의 말 같이

**찬송가:**

새315(통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337(통363)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446(통500) 주 음성 외에는

**여는 질문**

오랜 원수 앞에서 칭찬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본문 이해**

욥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본문은 운문체 대화(42:1-6)와 산문체 이야기(42:7-17)가 세밀하게 엮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욥의 “회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욥기의 후기(後記)가 책 전체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42:1-6). 욥이 주님(YHWH)을 만났습니다(욥 38-41장). 이제까지 듣던 것과 다른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방대하고 복잡한 우주의 수도 없이 신비한 일들을 돌아보십니다. 그 안에서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욥은 자신을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이해합니다(“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3절, 참조. 38:2). 또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했다고 인정합니다. 욥은 자신이 행한 일(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일(하나님을 응징보상 정의로 축소시킨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6절 말씀을 조심스럽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한 말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임을 인정합니다.”

후기(욥 42:7-17)에서 주님이 엘리바스를 책망하고 욥을 칭찬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고 질책당합니다. 주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42:7, 8). 주님은 욥이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바라십니다. 주님이 욥을 회복시키고 두 배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응징보상 신학(8:3-6; 11:13-19; 22:23-29)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욥이 신학적으로 항거한 것을 승인하면서 하나님의 응징보상 신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 말씀 속으로

1. 욥은 하나님을 만난 뒤, 무엇을 회개하나요? 욥이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했다고 칭찬을 들은 것을 고려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뒤 욥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회개는 개인의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욥의 친구들이 죄와 고난을 단순히 연관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2. 욥이 친구들을 위해 무어라 기도할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위해 중보해 줄 자를 찾던 욥이(9:33; 16:19; 19:25; 40:2), 친구들을 위해 제사장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 삶 속으로

1.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그런 고백을 기쁘게 했나요 슬프게 했나요?
2. 나와 다투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나요? 그 기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욥이 찾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오직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당신의 몸에

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습니다.

## 암송구절 읊기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자녀와의 나눔

1. 부모님에게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외치나요? 죄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의 사랑.
2. 다투고 나서 화해할 때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은가요?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았다."